

對중국 농수산물식품 수출1위 명성 지킨다

— 11월 26~29일 베이징 식품박람회서 530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충남도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중국 베이징식품박람회'에 도내 8개 업체가 참가해 총 53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로 미국, 태국, 영국 등 26개 국가 526개 전시업체가 참가하고 2만 2000명의 전문 바이어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도는 수출유망품목의 발굴 및 중국 내륙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8개 업체를 선정, 올해 베이징 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했다.

도와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조미김, 홍삼, 두유, 젓갈류, 주류 등 도내 8개 업체의 10개 품목으로 구성된 충남도관을 공동으로 운영했으며, 도 상해사무소 관장이 현장에서 도내 업체의 수출 상담을 지원했다.

금산에 소재한 한인홍(주)의 임재화 대표는 중국 내 인삼 수출시장을 그동안 홍콩, 상해 등 남방지역 중심에서 북경 지역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현지 약국체인점과 수출계약을 위해 상담을 진행했다.

보령 갯바위식품(주)의 김영진 이사는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조미김

과 신규상품으로 개발한 유아용 김 제품을 내세워 중국 현지 2개 업체와의 수출계약 체결을 눈앞에 뒀다.

천안 삼육식품(주) 김기완 팀장은 최근 유아용 두유, 과자 등 한국산 유아 제품에 대한 중국 일반 소비자의 관심에 힘입어 현지 바이어의 주문량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훈 도 농산물유통과장은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심비디온, 밤, 인삼, 조미김 외 유아용 간식, 분유, 우유 등 수출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중국 내륙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농수산물의 중국 수출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 9359만달러 규모로, 전국 도 중 수출실적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충남 20년 역사 e-book으로 만나보세요

— 도정신문 전자책 발간 1994~2013년까지 충남도정 자료 한눈에



#1. 20년 전...

천안군, 공주군, 아산군, 서산군, 보령군...

젊은 세대들은 '어디 지명이지?' 하며 의아해할 것이다. 하지만 20년 전 오늘 충남지역에 존재했던 기초단체 지명이다. '참! 옛날에 그랬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추억에 잠길 것이다.'

#2. 10년 전...

"충청도민 단결하여 신행정수도 사수하자"

2004년 10월 정부가 추진해오던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산됐다.

충청지역민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을 촉구하는 쉼기대회를 갖는 등 행정수도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연기군 일원에 제2의 수도건설이 이뤄졌다

(중략)

지난 20년간 도정의 역사가 총망라된 전자책(e-book)이 발간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신문 형태로 발간되고 있는 '도정신문'을 언제 어디서나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권의 전자책(onebook.adevent.kr)으로 발간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전자책에는 지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충남지역의 굵직굵직한 도정사 및 지역소식,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용량은 신문형태로 무려 8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이 데이터들은 책갈피, 본문 검색, 원문 확대·축소, 다운로드 및 복사, 인쇄 기능이 탑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다.

주소는 충남넷(chungnam.net)이나 네이버에서 '충남도정신문'을 검색해 들어가면 된다.

이윤선 홍보협력관은 "자료적 가치가 뛰어난 도정신문 역사는 도시(道史)이자, 충남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접속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에 열린교육타운이 조성된다

— (가칭)홍성신리초 어린이공원 복합커뮤니티 시설 통합설계

201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홍성신리초등학교의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다.

충남도교육청은 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2015년 3월까지 학교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건축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난 7월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내포신도시 교육시설 특화·충실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내포신도시 교육시설 특화·충실화 프로젝트는 도와 도 교육청, 내포신도시 총괄기획기인 운영체 경희대 교수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초등학교와 공원,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기능적으로 연계해 이용자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번 당선작은 흥성신리초등학교와 어린이공원,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하나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조화로운 배치를 통해 주 이용자인 학생 편의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가칭)흥성신리초등학교는 내포신도시 내 1만 3000㎡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지며 초등학교 교사동과 다목적 강당 및 시청각실, 유치원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지난 11월 20일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며 2015년 6월 착공해 201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가칭)흥성신리초를 시작으로 내포신도시내 설립될 모든 학교는 열린 교육타운으로 인근에 공원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배치해 풍부한 녹지와 함께 쾌적하고 수준 높은 에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흥성신리초등학교 에듀타운 조성을 계기로 내포신도시 내 교육환경이 특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비전·발전계획’ 밑그림 그린다

－ 연구용역 본격 착수…해양수산 관리·이용·개발 방향 등 모색

충남도가 해양수산 분야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11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정책

자문위원과 서해안비전 기획단 등 전문가와 공무원, 용역기관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의 해양수산 비전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해양수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이용·개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추진한다.

또 서해안비전을 중추적으로 이끌고 나아갈 해양수산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각종 국가계획 및 정책에 반영,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있다.

내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공간적 범위를 바다를 접하고 있는 7개 시·군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파급효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키로 했다.

시간적 범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로, 2017년까지 단기계획, 2020년까지 중기계획, 203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나눈다.

연구용역 내용은 ▲국내·외 해양수산 산업여건 변화 및 전망 ▲도내 해양산업의 분야별 현황 및 특성조사 ▲도 해양수산 정책의 활용도 및 차별화 전략 수립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수산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또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도출 및 시행전략 수립 ▲해양수산 발전계획의 정책효과 분석 ▲해양수산 기반 지역혁신전략 수립 ▲종합 발전 방안 로드맵 등도 연구용역을

통해 찾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용역 기관의 사업 수행 방향과 방법, 세부 수행 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자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도는 지난 2013년 7월 해양수산물 수출 촉진과 함께 비전으로 ‘해양 건도 충남, 환경해권의 새로운 중심지’를 제시하며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해양과 항만, 수산, 해양레저 등 해양수산분야 정책 및 사업의 방향 등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한·중 FTA 피해 최소화 전략 마련해야”

－ 충남발전연구원, 한·중 FTA 대책 마련 리포트 발간

충남도는 최근 타결된 한·중 FTA로 인한 위기와 기회를 분석해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더구나 중국은 충남 제1의 교역국으로써 향후 대처방안에 따라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의 농업, 수산업, 지역경제, 지역발전 등 4개 분야로 나눠 한·중 FTA 특집 ‘충남리포트’를 지난 11월 26일 발간했다.

△ 김양중 책임연구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에 힘써야”

지난해 충남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은 217억불(70.2%)을 수출한 전자전기제품이며, 다음으로 화학공업제품 54억불(17.4%), 기계류 21억불(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1위 품목 역시 전자전기제품으로 8억불(24.7%)을 수입하였고, 이어 농림수산물 5억불(15.8%), 화학공업제품 5억불(15.6%) 등이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충남의 교역비중으로 볼 때, 전자전기제품은 전국보다 수출비중도 매우 높아 관세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가장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현지화와 ITA협정(정보기술제품 무관세 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져서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충남의 화학공업제품, 기계류(수송기계) 역시 한·중 FTA로 인한 관세인하효과가 발생해 수출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흑자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의 수입적자 품목인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 섬유류 등은 이번 한·중 FTA로 인해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철강금속제품의 경우 국내 유통가격과 수입산 철강가격 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중국이 FTA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국내 시장이 빠르게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섬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중저가 섬유 시장이 중국산으로 대체되어 경쟁

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일 뿐더러, 중저가 섬유를 생산하는 업체 대부분이 국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중국산 저가 섬유수입에 대응할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 연구원은 “한·중 FTA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산지인증, 사후검증 등 지속적인 활용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 하고, 기술지원, 투·융자지원, 거래선 확보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충남의 중소수출기업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예산 확대와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중소기업이라도 복잡한 수출입 규정으로 인한 엄청난 행정비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FTA 규정 해석 등 전반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강마야 책임연구원 “충남 농정의 구조적 체질 개선 필요”

강마야 연구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실질적 타결 내용에서 농축산물 분야가 선방했다는 낙관적 전망은 시기상조라면서” 농업분야는 FTA 타결 이전부터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직·간접적 피해발생이 현재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타결내용 외형만 봤을 때, 한국측은 주요 548개 신선농축산물 품목(34%)은 양허 제외,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관련품목 등 1,063

개 품목(66%)은 개방을 허용한 반면, 중국측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101개 품목(8.9%) 양허 제외, 식량자급률이 부족한 우리 신선농축산물 품목 1,030개 품목(91.1%)은 개방을 허용한 절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FTA의 쟁점으로 가공품 수입에 따른 발작물 생산기반 위축과 그에 따른 농가경영 악화, 그리고 원산지규정·위생 및 검역·식품 안전성기준·지역화 등 비관세장벽 협상에 따른 추가영향 등을 거론했다.

강 연구원은 “앞으로 충남은 단기적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발작물의 품질 경쟁력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FTA 협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기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대책과 중국의 농축산물 육성 전략 등 최근 정보와 동향 파악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 김종화 책임연구원 “충남 대표 수산물 보호 전략 마련되어야”

이번 한·중 FTA에서는 중국이 김, 해삼, 미역, 전복, 넙치 등의 품목에 대하여 자유화를 100%로 즉시 관세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를 양허했기 때문에 중국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충남 대표 수산물의 대부분은 초민감 또는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발

효 이후 당분간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산 수산물이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국보다 저가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국내산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김 연구원은 “특히, 충남은 중국과 서해안을 맞대고 있고 갯벌어업이 성행하여 중국 수입 수산물과 교차되는 품목이 많아, 그에 따른 영향 관계가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편으로 충남은 김, 해삼, 전복, 갯벌참굴 등 수산물 생산에 적합한 천혜의 해양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대 중국 수출물량 확대와 시장 개척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충남의 주요 수산물인 바지락은 현재도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굴과 김, 꽃게(냉동), 낙지 등은 관세 감축에 따른 수입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양허 제외된 김, 해삼, 멸치, 넙치 그리고 냉장 꽃게 등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연구원은 “다만 충남의 특화 수산물인 주꾸미, 전복, 전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관련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화수산물에 대한 정보공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FTA 타결에 따른 수산업 분야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대중국 수출전략품

목 육성’, ‘어촌 소득의 다양화’,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충남은 김, 해삼, 전복 등을 대중국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면 품목별 생산조직 육성, 계획생산 및 유통시스템 구축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경철 책임연구원 “한·중 FTA,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편 박경철 연구원은 “이번 FTA는 경제적 협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협상에 가깝다.”면서 “이는 중국이 자유무역 경제협력체를 한국을 기점으로 동아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나아가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중 FTA 타결은 단순한 경제적 득실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으며 지역 발전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한·중·일 FTA 타결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한국과 일본 경제를 포섭하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세부 품목에 대한 영향 평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인접한 신흥 자유무역구의 발전 전략 등 인근 지역의 대응방안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중 FTA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박 연구원은 “특히 서산시 대산항과 신동성 룡청시 룡연항(龍眼港) 간 여객선 취항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던 백제문화의 복원과 제주도·서울시와는 차별화된 대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고, 충남도 뿐만 아니라 서해안 지역 지자체와 협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충남발전연구원, 하반기 봉사활동 실시

지난 10월부터 충남발전연구원은 농번기를 맞아 충남 농촌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부서별 특성을 감안해 농촌 농업연구부를 중심으로 홍동마을에서 농촌봉사 활동을, 환경생태연구부 등은 금산 천내습지 청소를 실시하는 등 의미있는 하루를 보냈다.

앞으로 충남발원은 상반기에는 전 직원이 모두 모여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부서별 또는 연합으로 뭉쳐 각각 봉사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충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팀’ 본격 가동

— 도내 중국관련 전문인력 부족한 시·군에 활력 기대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이 충남도와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중국연구팀’을 꾸려 운영한다고 10월 14일 밝혔다.

10월부터 업무에 들어간 ‘중국연구팀’은 미래전략연구단 소속의 총3명으로 도내 지역발전전략사업을 중국과 원활히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서비스 제공, 그리고 기초 조사 연구와 자문 등을 수행하면서 충남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對)중국 교류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나 중국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를 내지 못했던 도내 시·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 중국관련 연구들은 중국 현지에 대한 기본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금하게 정책대안을 제시하다보니, 심도깊은 연구내용과 정책대안의 실천성 등이 충분치 못하다는 분석이다.

충남발원 박인성 중국연구팀장은 “2013년 충남도의 대(對)중국 수출의존도는 47%로, 전국 평

균 수준인 26%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여기에 중화경제권에 속하는 타이완과 홍콩까지 합하면 65%에 달한다.”면서 “중국의 경제성장과 그에 수반한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충남도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대(對)중국 전략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발원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중국연구팀’은 중국에 대한 연구능력이 국내 지방연구원은 물론 국책연구원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팀장인 박인성 연구위원은 중국인민대학 박사(경제학)로 국토연구원 중국지역연구 담당과 중국내 명문대학인 저장(浙江)대학 도시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이외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베이징(北京)대학 박사(사회학)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홍원표 책임연구원은 베이징대학 박사(지리학)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서울연구원 등에서 중국연구를 담당한 전문가이다.

충남발원 강현수 원장은 “앞으로 이 팀은 중국내 교류 대상지역인 성(省), 시(市)·현(縣)의 현황과 주요 발전전략 등을 조사·분석하여 충남도 및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미 충남도는 환황해권시대를 대비해 ‘서해안 비전’을 선포했고,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인적 부분으로 확대, 강화해 나간다고 발표한 만큼 ‘(가칭)충청중국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